

# 회화의 힘... 격변의 시대를 증언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베트남에서 베를린까지(FROM VIETNAM TO BERLIN)'전에서는 현대사를 회화로 풀어낸 17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채 계바라의 죽은 후 모습을 그린 안 페이밍의 작품이 인상적이다.

## 문화전당 7월 8일까지 '베트남에서 베를린까지' 전

'강렬한 회화로 만나는 현대사.' 세상을 초월한 듯 초점 잃은 눈동자와 알 수 없는 표정, 반쯤 벌린 입과 땀수룩한 수염, 거친 붓질로 표현된 한 남자의 초상 앞에서 사람들은 쉽사리 발을 떼지 못한다. 볼리비아에서 출생한 아르헨티나 혁명가 채 계바라(1928~1967)의 죽은 직후 모습이다. 흰색과 검정, 회색만으로 표현된 '채 계바라'는 대형 초상화로 유명한 중국 작가 안 페이밍의 작품이다. 그는 베트남전 참전을 결정한 존 F. 케네디, 60년대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 마틴 루터 킹 목사, 중국 공산당 주석 마오쩌둥 등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세계 정치적 풍경을 상징하는 인물들을 전시 중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기획한 '베트남에서 베를린까지(FROM VIETNAM TO BERLIN)' 7월 8일까지 문화장조원 3·4 전시실)전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강렬하다. 이번 전시에서는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0년대까지 격동의 현대정치사를 '회화'로 풀어낸 바로 '그 당시'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미디어,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발단이 강해진 요즘의 미술계에서 강렬하고 날 선 '회화'의 힘을 만날 수 있는 전시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또 이번 전시는 반전, 반독재, 독립투쟁, 인권투쟁, 민주화 운동 등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과 역사의 기억을 공유하고 그 역사와 미술의 상관 관계의 의미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김성원 전시사업본부 예술감독과 김승덕·프랑크 고트르(프랑스 디종 르 콩스르 시움 공동디렉터) 3명이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에는 레온 콜립·로버트 라우센버그(미국), 예로(아이슬란드), 베르나르 랑

###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 회화로 풀어낸 현대사

### 앤디 워홀·레온 콜립·신학철

### 25개국 50명 170점 전시

시야(프랑스), 이시이 시게오(일본), 신학철·최민화(한국) 등 25개국 50명 작가가 초대됐다. 전시작들은 파리 퐁피두센터와 국립조형예술센터, 일본도쿄국립근대미술관, 스위스 강뒤르 재단 등 전 세계 32개 기관과 개인 소장자들에게 수집한 것들로 회화, 드로잉, 판화 170점을 만날 수 있다.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프랑스,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역사적 현장과 인물들

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만나는 이번 전시는 연대기 순으로 구성돼 역사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느낌이다. 특히 전시장은 관람객의 모습이 비치는 은박지 느낌의 '거울 시트'로 구성해 과거와 현재가 대화를 나누는 기분을 전해준다.

일본작가 이시이 시게오의 '계엄령 상태'는 강렬한 색감과 스토리가 눈을 사로잡으며 식민지 독립투쟁에 반응했던 아프리카 작가들의 작품은 화려한 색감과 사실적인 묘사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대중문화와 만화의 이미지를 활용해온 베르나르 랑시악의 작품은 유쾌하다. '블러디 코믹스'는 칠레 독재자 피노체트가 도달드 덕으로 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죽음을 부재와 침묵으로 재현한다"는 평을 받은 앤디 워홀의 '전기의자' 시리즈, 미국 허드슨 강 배 위에서 손을 흔드는 마오쩌둥의 모습을 담은 '뉴욕 앞에서' 등의 작품도 인상적이다.

민정기, 홍성담, 신학철, 강연균 등 국내 작가들의 전시작은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에 주목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실린 '타임'지 표지 위에 그린 최민화 작가의 '깃발만 나부껴', 80년대 청년의 모습을 그린 '기투' 등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전시작들은 1960~80년대 제작된 작품이 주를 이루지만 일본 작가의 50년대 작품과 정치적 회화가 활발히 제작됐던 아프리카와 인도 작가의 1990년대 초기작 등도 작품의 의미를 고려해 포함시켰다. 안 페이밍의 작품은 2000년대 제작됐지만 '역사는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전시의 에필로그적 역할을 하는 정치로 전시했다.

전시를 관람하는 내내 귀를 자극하는 '소리'가 있다. 사운드 아티스트이자 뮤지션인 정기현의 작품으로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의 혁명, 저항, 투쟁과 연관된 음악들, 사운드, 뉴스들을 샘플링해 제작한 작품 '혁명라디오'다.

전시를 관람하기 전 작품 안내 책자를 챙기는 게 필수다. 전시작에는 설명이 붙어 있지 않다. 대신 주최측은 각 작가에 대한 설명과 작품, 역사적 배경 등을 자세히 소개한 책자를 제작했고 관람객들에게는 친절함 안내서 역할을 한다. 김성원 본부장은 "회화가 주는 강렬한 힘을 통해 역사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고 싶었다"며 "지열했던 그 시대에 '응답'한 전 세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에게 객관화된 역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티켓 한정(5000원)으로 문화장조원 1·2 전시실에서 열리는 박찬욱·박찬경 형제의 '박찬찬스전'을 포함 4개 전시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베르나르 랑시악 작 '블러디 코믹스' © Musée des Beaux-Arts de Dole, cl. Jean-Loup Mathieu

## 진도북춤보존회 '내드름' 초청 공연

### 목요일국악한마당... 내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광주시 서구는 빛고을국악전수관은 목요일국악한마당으로 진도북(춤)놀이보존회 '내드름' 초청 공연을 진행한다. 15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내드름'은 진도북(춤)놀이(무형문화재 18호, 39호) 박병주 이수자가 1991년 무형문화재 진도북놀이(제18호·양태옥류), 진도설북춤(제39호·김내식류)을 전승, 보존하기 위해 창립한 단체다.

'진도북 그 위에 꿈을 싣고'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내드름 단원들 17명이 출연한다.

공연 레퍼토리는 내드름 창작작품으로 태평소·승무·설장고가 어우러진 '여명'을 비롯해 진도북놀이, 산조춤, 한량무, 사물놀이 등이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2-350-4557.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영산강문화관 상반기 문화장터 17일 개장

### 6월 10일까지... 록 밴드·뮤지컬 갈라쇼 등 다양한 공연



영산강문화관(관장 장희정)은 오는 17일부터 6월 10일까지 '2018년 상반기 영산강 문화장터(이하 문화장터)'를 개장한다.

문화장터는 영산강문화관과 승촌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된 행사다.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야외 공연은 문화장터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이번 시

즌에는 청소년 록밴드 및 7080세대 공연, 색소폰 앙상블, 창작 뮤지컬 갈라쇼 등 다양한 작품이 준비돼 있다. 또 다채로운 먹거리가 만날 수 있는 음식 부스와 공예체험 프로그램을 마켓형식으로 운영한다.

동시에 영산강문화관 내부에서는 미술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문의 061-335-086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광주역사·민속자료 기증 운동

"광주 관련 유물을 기증받습니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조만호)에서는 상설전시실의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앞두고 광주 관련 자료, 민속자료의 특별 기증운동을 4월 30일까지 펼친다.

주요 기증대상 유물로는 조선시대 이전 광주관아의 운영에 관련된 자료, 동학농민운동·한말의병·광주학생독립운동

등 근현대사기의 광주역사자료를 비롯해 무등산과 광주천 등 광주의 주요 공간 및 변천자료(1950~70년대) 등이다.

유물은 무상기증(순수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기증의사를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면, 유물감정심의회 심의를 통해 인수 및 수증 절차를 밟는다. 문의 062-613-5362. /박성천기자 skypark@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등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